

의식 혁명

데이비드 호킨스 (미국 정신의학자)

〈3〉 힘과 위력, 인간 행동의 숨은 결정자

사랑·연민·용서의 힘은 위력 굴복시킬 수 있어

power force

의식 수준의 사회적 분포

세계 인구의 에너지 수준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탑의 지붕 모양과 비슷할 것이다. 여기서 인류의 85%는 임계 수준 200이하로 측정된다. 반면에 오늘날 인간 의식의 전체 평균 수준은 대략 207이다. 정치부의 상대적으로 극소수인 개인들의 힘이 바다 쪽에 있는 대중의 약함을 상쇄해 이 전체 평균을 달성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인구의 4%만이 500이상의 에너지 장으로 측정된다. 600이상으로 측정되는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천만 명 중 단 한 명이다.

첫눈에 이 수치는 그럴법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는 여러 아대륙(亞大陸)의 전체 인구가 근근이 연명하는 수준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금세 상기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곳에서는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자원 결핍을 자주 동반하는 기근과 질병이 흔하다. 그런 국민 다수가 무감정 수준으로 측정되는 희망 없는 상태에서 비참한 가난을 체험한 채 살아간다. 우리는 또한 원시적 세계는 물론이고 문명화된 세계에 이르기까지 세계 인구의 나머지 대다수가 일차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 인류 대부분은 이러한 형태의 안전을 추구하며 삶을 보낸다. 생활이 재량에 따른 선택지들을 허용할 정도로 생존의 명령을 초월해 있는 이들은 욕망으로 구동되는 세계 경제의 방앗간에 들어가는 곡식이 된다. 그리고 욕망을 충족시키는데서의 성공은 기껏해야 자부심으로 인도한다.

일체의 유의미한 인간 속죄는 250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시작조차 될 수 없는데, 그 수준은 의식 진화에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긍정적 인생 경험의 기초로 출현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문화적 상관관계

△200 이하의 에너지 장들은 사람들이 근근이 연명하는 극단적으로 원시적인 조건에서 가장 흔하다. 입을 것은 드물고, 문명이 규칙이고, 영아 사망률은 높고, 질병과 영양실조가 만연하며, 사회적 힘은 진공이다. 이것은 동물 존재보다 나은 것이 없는 석기 문화의 수준이다.

△200대 초반의 의식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인구는 미숙련 노동, 조보적 기술, 나무속을 파내 만든 카누 같은 단순한 수공업 제작, 일시적 주거가 전형적이다. 의식 평균이 다소 높은 인구에서 농경이 출현하며 물물교환은 화폐 이용으로 진화해간다.

△ 200대 중반은 반숙련 노동과 결합돼 있다. 단순한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는 주거와 식량 경제는 믿음직스럽게 이용 가능해지게 된다. 입을 것은 넉넉하고 초등 교육이 시작된다.

△ 200대 후반은 숙련 노동, 육체 노동자, 상인, 소

매업, 산업으로 대표된다. 예를 들면, 더 낮은 수준들에서 고기잡이는 개인활동이거나 부족 활동인데 200대 중반 이상에서는 하나의 산업이 된다.

△ 300 수준에서 우리는 기술자, 숙련된 고급 기공, 일반 관리자, 보다 정교한 기업 구조를 발견한다. 중등 교육 이수가 관습적으로 된다. TV는 이 수준에서 굉장히 좋은 소일거리다.

△300대 중반에서 우리는 고급 관리자, 장인, 교육자들을 발견하는데, 이들은 공적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며 부족과 지역 혹은 도시를 넘어 국가 전반과 국민 복지에까지 미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의미 있는 관심사가 된다.

△400대는 지성이 깨어나는 수준이다. 참된 문해, 고등교육, 전문직, 경영자, 과학자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더 낮은 수준들에서는 가정에 읽을거리가 부족하지만, 이 수준은 잡지, 정기간행물, 팍 찬 서가를 과시한다. 400대 후반은 각 분야 지도자, 높은 사회적 명망, 성취와 결합돼 있고 어울리는 사회적 장식과 결합돼 있다.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는 499로 측정된다. 그러나 400대는 대학과 박사학위의 수준인 반면, 한층 더 있고 그리고 한정하는 뉴턴적 우주관의 원천이자 육체와 정신의 데카르트적 분열의 원천이기도 하다(뉴턴과 데카르트 역시 499로 측정된다.)

△ 200 수준이 의식의 임계적 변화의 분기점인 것 과 마찬가지로, 500은 알아 또 한 번 크게 도약하는 지점이다. (이는 그냥 힘이 아닌 힘의 성질 변화로 인한 것이다.)개인의 생존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랑이라는 동기부여가 모든 행위를 물들이기 시작하고, 창조성이 몰두와 헌신 그리고 카리스마의 표현을 동반한 채 전면적으로 표현되게 된다. 여기서는 스포츠에서 과학 연구에 이르는 인간 노력의 전 분야에서 탁월함이 일반적이다. 이타주의가 원칙에 대한 헌신과 더불어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가 된다. 지도자의 자리는 추구되기보다는 수용된다. 이 수준에서 위대한 음악, 미술, 건축이 출현하고, 단순한 현존만으로 타인을 고양시키는 능력이 출현한다.

500대 후반에서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지도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나머지 사회에 본보기가 되며, 각 분야에서 전 인류에게 광범위한 함의를 갖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한다. 비록 그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여전히 결함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수준에 있는 이들은 일반 대중에게 상상치 않게 보이는 일이 많고 남다른 표식이 인지될 수도 있다. 500대 중반에서는 많은 이들이 심오한 의미를 갖는 영적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영적 추구에 빠져들게 된다.

의식의 진보

비록 우리가 묘사한 수준들은 넓은 진폭을 갖지만, 개인이 한 생애에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이동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태어날 때 측정된 개인의 에너지 장은 평균 약 5점까지 증가하는 데 그친다. 개



인간 의식 전체 평균 의식 수준 '207

개인 에너지 장은 평생 5점 증가하는데 그쳐 하지만 모든 생명에 우호·친절 베풀면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

인의 의식 수준이 날 때부터 이미 발효(發效)돼 있다는 것은 심오한 함의를 갖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개념이다. 의식 자체는 인간 문명으로서의 그 표현에서 정말 서서히 무수히 많은 세대를 거쳐 진화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타고난 에너지 장의 변종들을 정교히 가다듬고 표현하는 데 이용한다. 비록 많은 이들이 상당한 내적 발전을 이룰 수도 있지만, 타고난 에너지 장 너머로 용케 이동하는 개인은 드물다. 그 이유는 사람의 수준을 규정하는 것이 동기부여임을 알 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동기부여는 의미에서 시작되고, 의미는 차례로 맥락의 한 표현이다. 그리하여 성취는 맥락에 종속되는데, 맥락은 동기부여와 상응하게 정렬될 때 개인의 상대적 힘을 결정한다.

생애 평균 불과 5점의 상승은 물론 통계 수치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삶에 누적되는 수많은 선택이 자신의 의식 수준의 최종적 저하로 귀결된다는 불행한 사실로 하여 빛이진다. 의식이 앞선 극소수 개인들의 영향력이, 낮은 수준에 있는 인구 전체를 상쇄한다. 하지만 거꾸로 몇몇 비뚤어진 개인의 극단적 부정성은 전 문화를 뒤집어 놓을 수 있고 또한 의식의 전체적 수준에 광범위한 거지적거리음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이는 역사 속에 너무나 잘 예시돼 있다. 근육테스트는 불과 2.6%의 인구가 72%의 사회 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가리키는데, 그 2.6%는 비정상적인 신체운동학적 극성(부정적) 관계에는 강한 반응을 그리고 긍정적 관계에는 약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점에 이르기조차 하는 갑작스러운 긍정적 도약은 가능하다. 만일 사람이 진실로 200이하 관계장들의 예고 중심적 끌어당김을 피하면서 생애에 우호적인, 성실한, 친절함 용서하는 점

근방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마침내 타인을 향한 관대함을 일차적 초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실천적으로는 큰 의지가 요구될 것이다. 이렇듯, 사람이 한 생애에 하나의 에너지 장에서 나와 다른 에너지 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흔치 않지만,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전히 동기부여다. 선택하지 않는다면 진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힘의 측정 수준들의 진보가 로그값을 취한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개인의 선택은 막강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유의미한 것은 힘의 수준이다. 예를 들면, 361.0과 361.1 간의 힘 수준의 차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사람의 삶을 바꾸고 일반 세계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바꿔 놓을 수 있다.

힘의 근원

우리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학술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실용적 이해이지만, 힘과 위력에 대한 간략한 분석만으로도 일정한 철학적 결론을 즉각 도출할 수 있다. 실용적 관점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기에 힘의 내재적 근원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힘의 보다 큰 강점들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위력이 항상 힘에 굴복하고 마는 것은 왜인가?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 헌법은 보람 있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헌법은 대략 700으로 측정된다. 한 분장씩 검토해 보면 그것의 힘의 근원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만인은 창조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평등하며 인권은 인간 창조에 내재돼 있고 따라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개념이다.

힘 VS 위력

고찰해 보면, 우리는 힘이 의미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의미는 동기와 관련되고 원칙과 관련된다. 힘은 항상 생명의 의의 자체를 지지하는 거소가 결합된다. 힘은 우리가 숭고하다고 일컫는 인간 본성의 일부에 호소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위력은 우리가 우둔하다고 일컫는 것에 호소한다. 위력은 언제나 정당화돼야 하는 반면, 힘은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위력은 부분적인 것과 결합되고, 힘은

전체적인 것과 결합된다.

위력의 본성을 분석하면, 그것이 왜 항상 힘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지가 금세 분명해지게 된다. 그것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 가운데 하나와 부합한다. 위력(force)은 자동적으로 저항력(counter-force)을 창조하기 때문에 위력의 효과는 정의상으로 한계를 갖는다. 우리는 위력이 하나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저항을 거슬러 이곳에서 저곳으로 간다(또는 가려고 한다). 한편, 힘은 벗어 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장과 같다. 예를 들어 중력 자체는 절대 무엇을 거슬러 움직이는 일이 없다. 중력의 힘은 모든 물체를 중력장 안에서 움직이지만, 그 장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위력은 항상 저항력을 창조한다. 그것의 효과는 통일시키기보다는 분극화(分極化)한다. 분극화는 항상 갈등을 암시하며 따라서 늘 비용이 많이 든다. 위력은 분극화를 부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승·패의 양분을 낳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항상 패배하기 때문에 적이 생겨난다. 항상적으로 적과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력은 지속적 방어를 요한다. 시장과 정치에서든 아니면 국제 문제에서든, 방어적인 것은 변함없이 비용이 많이 든다.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는, 힘은 나를 강하게 하는 반면 위력은 나를 약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뿐이다. 어떤 이들은 사랑, 연민, 용서를 굴종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심오한 힘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복수심, 시비 분별, 유죄 선고는 불가피하게 나를 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도덕적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약한 것이 끝내 강한 것을 압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임상적 사실이다. 약한 것은 저절로 무너진다.

인간 역사 전체를 통틀어 큰 힘을 가진 개인들은 자신을 강력한 끝개장과 온전히 정렬시킨 이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나타난 힘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음을 거듭 진술했다. 그들 모두가 힘의 근원을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에 돌렸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어떤 언어든, 어느 시대에든,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가르쳤을 뿐이었다. 모두가 말한 것은 단순히 이것이다. 즉, 강한 끝개장을 위해 약한 끝개장을 포기하라.

끝개장들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일부 약한 패턴은 보다 강한 패턴을 (형상만을)흔내 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모방자로 부를 것이다. 그래서 제3제국 치하의 독일 국민은 애국심을 흔내 낸 것에 기만당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진짜 애국심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선동가나 광신자는 모방자를 진품으로 팔려고 한다. 선동가는 그 목표를 위해 항상 많은 수사를 동원한다. 그러나 힘에서 움직이는 이들은 말할 필요가 거의 없다.

정리=나오는 기사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판미동'에서 펴낸 〈의식 혁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칠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부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